

# ‘오색 꽃 향연’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기대 만발

### 10월 5~13일...6일 서영은·유리상자 출연 ‘가든포크콘서트’ 10리 꽃강 걸으며 ‘힐링’...불떡존·백종원 ‘가든바비큐’ 관심

가을을 맞아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오는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황룡강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오색연화’다. 전국적으로 꽃 축제 붐을 일으킨 ‘꽃강 축제의 원조’답게 꽃자체를 핵심 콘텐츠로 앞세웠다. 코스모스, 해바라기, 백일홍, 핑크몰리, 버베나 등 화려한 가을꽃을 중심으로 발길 닿는 곳마다 공연과 꽃 체험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축제장은 ‘학문은 장성만한 곳이 없다’는 의미를 담아 흥선대원군이 남긴 ‘문불여장성’ 문구에서 착안해 문화존과 불떡존, 여유존, 장성존, 성장존 5개 구역으로 나뉜다.

중앙무대인 황룡정원 인근 ‘문화존’에선 5일 개막식,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플라워뷰티쇼 등 축제의 주요 행사가 열린다. 가을 저녁에 잘 어울리는 서정적인 포크송이 연주될 6일 가든포크콘서트에는 서영은, 유리상자, 여행스캐치가 출연한다. 4개 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연과 인디밴드들의 무대인 9일 ‘오색연화 콘서트’도 이목을 끈다.

11일에는 장성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평화 콘서트, 12일 전남제천 성공기원음악회도 이어진다. 특히, 성공기원음악회는 내년 4월 장성 최초 초 열리는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바라는 마음을 한 데 모으는 자리다. 1부는 뮤지컬

·팝페라 공연, 2부는 김희재, 예북 등이 출연하는 트로트 음악회가 기다린다. 축제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내년 축제를 기약하는 폐막공연 무대가 대미를 장식한다.

‘불타는 먹거리존’의 줄임말인 ‘불떡존’은 장성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로 가득찬 공간이다. 장성군과 협업 중인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비법을 전수한 특제 가든바비큐부터 글로벌푸드, 로컬음식, 농특산물장터 등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문화대교 인근 ‘여유존’은 말 그대로 여유롭게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캠프에 피크닉을 더해 가볍게 머물며 쉴 수 있는 ‘캠프나’,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가든티타임’, 꽃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플라워아트’, 요가, 전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장성존’은 강 건너편 힐링허브정원 방면에 있다. ‘놀이 한마당’과 예술작품 전시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이라면 ‘성장존’이 있는 황미랜드가 안성맞춤이다. 놀이터 인근에서 꼬마 댄서들을 위한 ‘랜덤 플레이 댄스’, 마술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호빛의 동굴’까지 가면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과거점 ‘윙윙봉상점’에서 흥미로운 게임이 펼쳐진다.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오는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황룡강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축제 모습. <장성군 제공>

이 외에도 ‘꽃길 버스킹’도 이번 가을꽃축제의 매력 요소 가운데 하나다. 황룡강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리 공연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일 오전에는 방문객들이 함께 쓰

레기를 주우며 강변을 걷는 ‘플로깅 행사’도 열려 환경 보호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시간이 갖는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대한민국 대표 꽃강 황룡강에서 펼쳐지는 가을꽃축제를 통해 ‘꽃’이 ‘문화’가

되는 경험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하고자 한다”며 “자연 친화적 축제로의 외연 확장, 세계와 소통하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방문객과 참여,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조선시대로 시간여행...27~29일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 나주읍성 상설시장 ‘시전’ 재현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

조선시대 상설 시장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시전’ 거리가 나주에서 재현된다.

나주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4회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금성관과 정수루, 목사내야 등 나주 읍성권 문화재 일원에서 ‘과거로의 시간여행, 문전성시’를 주제로 진행한다.

호남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나주목’과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던 나주읍성 시전 거리를 재현하고

수문장 교대식, 마당극, 버스킹, 민속놀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의 최대 볼거리는 ‘조선시대 시전 거리’ 재현이다. 시전(市廛)은 고을이나 도시에 있던 상점가를 뜻한다. 주로 오늘날 종로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조선시대 상설 시장을 가리켰다.

이번 축제에선 작은 한양(소경·小京)으로 불렸던 나주에서 시전을 재현해 마치 조선시대 시간 여행을 떠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거리를 구성했다.

시전 거리는 나주읍성 사매기길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쌀·건어물·과일전, 읍성 주막 등 방문객의 허기를

달래줄 각종 먹거리와 더불어 조선 잡사 재담꾼, 보부상, 지계꾼, 어우동, 선비 등 저잣거리 인물이 재미를 더해준다.

셋골나이, 천연염색 등 나주의 전통문화와 조선 신분증(호패)·전통부채·한지등 만들기, 병영(곤장) 체험, 투전놀이 등 체험 거리도 다채롭다.

김준정 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는 무대공연 위주의 관람형 행사를 탈피해 방문객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다”며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즐기고 저잣거리 인물들과 만나 보며 역사문화도시 나주에서 조선시대 시간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화순군, 노후 건물번호판 1300여개에 QR코드

### 긴급상황 발생 신속한 대응 가능

화순군이 올해부터 건물번호판에 QR코드(사진)를 도입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25일 밝혔다.

QR코드가 도입되는 건물번호판은 1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번호판 등 1340여 개다.

새롭게 도입되는 QR코드 건물번호판은 번호판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현재 위치와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 시 112와 119에 구조요청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화순군은 대표홈페이지와 주소 정보 누리집,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등으로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관 화순군 행정민원과장은 “건물번호판 QR코드 도입으로 정확한 위치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 편의와 안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주 기자 css@kwangju.co.kr

## 나주 천연염색, 서울 강남 가을하늘 쪽빛 물들인다

### ‘2024 강남패션페스타’ 참가 천연염색 전시·판매·체험장 운영

천연염색의 메카로 불리는 전남 나주시가 패션의 성지 서울 강남에서 열리는 ‘2024 강남패스티벌’을 파란 가을 하늘색을 담은 ‘쪽빛’으로 물들인다.

나주시에 따르면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오는 29일까지 코엑스와 압구정로데오 등에서 열리는 강남패션페스타에 참가해 나주 천연염색 패션 전시, 판매·체험장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 참가는 지난해 10월 24일 나주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당시 운병태 나주시장이 제안한 프로그램이 채택돼 성사됐다.

나주시가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선보일 천연염색 전시는 ‘폴·헷별·바람, 색(색)을 입다, 영상관에 흐르는 나주의 쪽 이야기’를 주제로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작품이 주를 이룬다.

정관채 국가무형유산 염색장을 비롯해 천연염색 작가 30여명이 다양한 기법으로 완성한 쪽 염색 패션 디자인 작품 40여점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나주를 대표하는 국가무형유산 김춘식 선생은 전통의 상다리가 간직한 미려한 곡선의 미학을 음미해 볼 수 있는 ‘나주 소반’을 선보인다.

전시와 더불어 나주에서 활동하는 천연염색자가 17인이 만든 일상용품·인터리외소품 판매를 비



서울 코엑스 동문 로비에 마련된 ‘나주 천연염색 패션전시관’.  
로해 천연염색 달항아리 열쇠고리, 가을들녘 색 손수건 물들이기, 머리핀·팔찌 만들기 체험도 운영한다.  
나주 천연염색은 강남페스티벌이 추구하는 ‘ESG’, ‘친환경’ 가치와 딱 들어맞는다.  
화학성유, 합성 염료가 만들어지기 이전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식물이나 동물 유래의 자연

를 활용해 의류를 제작하고 염색해사다.

나주 천연염색은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친환경적인 전통문화로 인정 받아왔다.

나주시는 이러한 가치를 보유한 전통 쪽염색 기법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국가무형유산 제115호 염색장 전수관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함평군, 국향대전 사전 입장권 10% 할인 판매

### 엑스포공원서 10월 18~11월 3일

함평군이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사전 입장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사전 입장권은 인터넷 티켓링크에서 10월 17일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티켓링크 메인화면의 검색창에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입력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함평축제관광재단 사무실을 방문해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0월 11일까

지 구매할 수 있다.

축제 기간 입장권 가격은 성인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및 노인 3000원이며, 20인 이상 단체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평군민은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함평국화의 겨울 이야기’라는 주제로 엑스포공원에서 열리며, 가을 국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조형물과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담양군,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선발 지원

담양군이 전남 도내 우수 인재의 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지역인재 고용 창출을 위해 ‘2024년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전남에 있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를 채용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5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우수

기업에는 ‘(주)늘찬애’가 선정된 바 있다.

참여 대상 기업은 도내 소재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지역인재 신규 채용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담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 후 참여기업 신청서 등을 작성해 담양군 경제교통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n@

## 강진군, 치매공공후견인 대상자 상시 모집

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인 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라고 25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에 해당하거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후견인을 통한 도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대상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 서비스는 법원의 지원 범위 결정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대리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동의,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함평군, 청년근로자에 4년간 2000만원 지원

### 근속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함평군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

화하고,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선정된 기업과 청년 근로자에게는 4년 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함평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청년 근로자는 입사 1~4년 차의 만 18세 이상 45세 이

하 정규직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함평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10월 11일까지 함평군 농업진흥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 사업이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